

참고 6.

코로나19 이후 국내은행의 신용리스크 변동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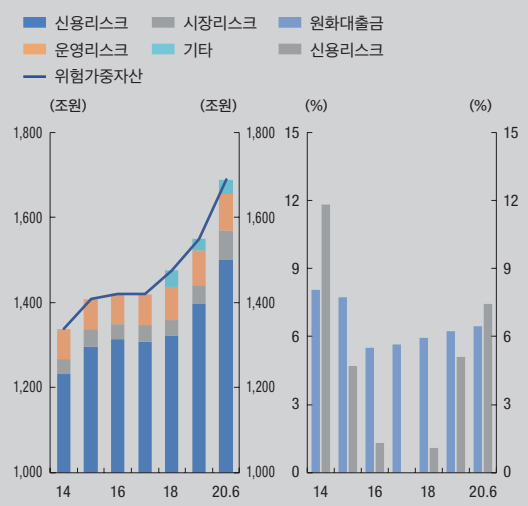
국내은행이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에 적극 나서면서 금년중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신용공급이 급증하였다. 은행 신용 익스포저가 확대된 상황에서, 실물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은행의 신용리스크가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하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국내은행의 신용리스크 변동을 점검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국내은행 위험가중자산 동향

2020년 6월말 국내은행 위험가중자산¹⁾은 전년말 대비 139.4조원 늘어나 바젤Ⅲ 도입 이후 반기 기준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였다. 구성 요소별로 보면 시장리스크 및 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이 각각 25.4조원, 2.5조원 늘어난 데 그친 반면 신용리스크는 103.7조원 증가하였다. 이러한 신용리스크의 큰 폭 증가는 상반기중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원화대출금이 크게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한다. 그러나 신용리스크가 원화대출금에 비해 빠르게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신용리스크의 변동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험가중자산 구성 변화 대출 및 신용리스크 증가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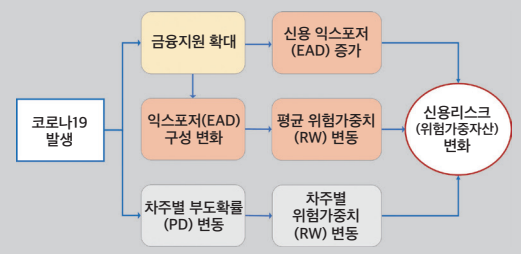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2020년 6월은 전년말 대비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코로나19 이후 신용리스크 변동 현황

은행의 신용리스크는 총신용익스포저²⁾ 변동, 익스포저 구성 변화, 차주별 부도확률 변화 등의 영향을 받는다. 코로나19 이후 은행의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지원은 총신용익스포저를 증가시키는 한편 평균 위험가중치를 변동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코로나19가 신용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1) 국내은행은 신용·시장·운영 리스크를 반영하여 위험가중자산(RWA: Risk Weighted Asset)을 산출한다. 2020년 6월말 현재 전체 위험가중자산은 1,688.4조원으로 전년말(1,549.0조원) 대비 9.0% 증가하였으며, 이 중 신용리스크 위험가중자산(1,500.3조원)이 88.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신용리스크 위험가중자산(이하 '신용리스크')은 은행의 신용 익스포저에 차주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하 '위험가중치')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2) 총신용익스포저는 크게 대출 익스포저와 금융상품·해외투자 익스포저로 구분되는데, 이하에서는 주로 대출 익스포저에 대해 분석하였다. 대출 익스포저는 예상치 못한 신용 손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대출 자산 등 난외항목 뿐 아니라 미사용한도 등 난외항목도 포함하고 있다. 난외항목의 경우 익스포저 산출 시 20~50%의 신용환산률 등이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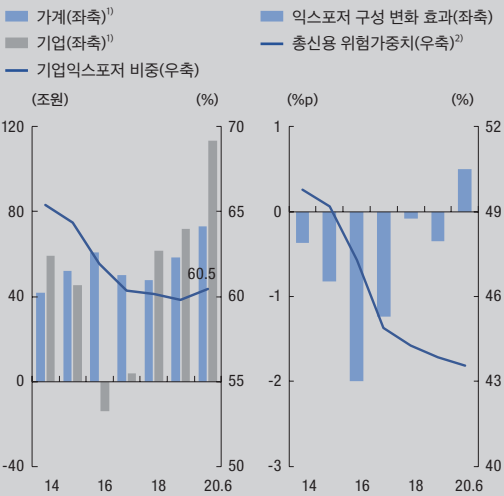
우선 코로나19 이후 신용공급이 총신용익스포저 변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상반기중 원화대출금이 전년말 대비 109.1조원(6.4%) 늘어나면서 총신용익스포저도 254.1조원(8.0%) 증가하였다. 차주별로는 기업대출(+81.3조원)이 가계대출(+27.3조원)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대출 익스포저 중에서 기업 비중이 2019년말 59.8%에서 2020년 6월말 60.5%로 상승하였다.

위험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높은³⁾ 기업익스포저 비중이 상승함에 따라 2014년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였던 총신용익스포저 평균 위험가중치의 하락세도 둔화되었다.⁴⁾

기업규모별 평균 위험가중치를 보면 대기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실물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위험가중치가 상승하였다. 반면 중소기업은 하락세를 지속하였는데 이는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등의 금융지원 조치가 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차주의 신용등급 분포⁵⁾가 개선된 데 주로 기인한다. 여기에 2020년 6월부터 바젤Ⅲ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이 조기 적용되면서 중소기업의 위험가중치가 하향 조정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⁶⁾

차주별 익스포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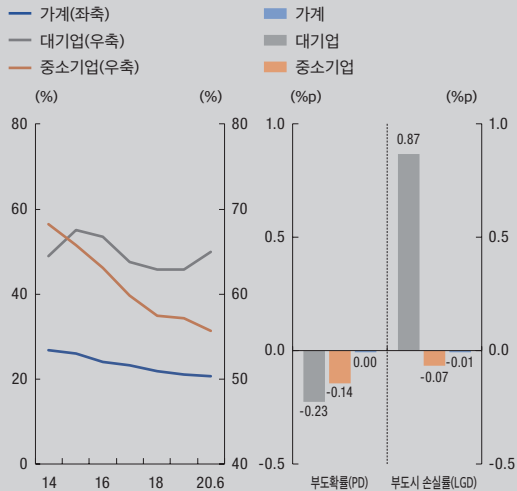
평균 위험가중치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감
2) 전년동기대비. 2020년 6월은 전년말 대비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차주별¹⁾ 위험가중치

차주별¹⁾²⁾ PD³⁾ 및 LGD³⁾



주: 1)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및 기타 소매(중소기업) 익스포저를, 가계는 주거용주택담보 및 기타 소매(개인) 익스포저를 포함
2) 내부등급법 적용 은행(12개) 대상
3) 은행별·신용등급별 부도확률(PD) 및 부도시 손실률(LGD)의 가중평균이며, 2019년말 대비 2020년 6월 증감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 3) 기업대출은 담보·보증대출 비중(20년 6월말 기준 66.4%)이 가계(75.5%)보다 낮다. 또한 신용대출 중 기업대출은 신용용차주 비중(20년 7월말 기준 63.7%)이, 가계대출은 고신용차주(68.9%) 비중이 높아 기업대출에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가중치가 적용된다.
- 4) 2014년 이후 저금리 기조 지속, 담보·보증대출 등 안전자산 위주의 포트폴리오 운영으로 총신용익스포저의 평균 위험가중치는 꾸준히 하락하였다. 개별자산 위험가중치 하락 효과(-0.7%포인트)에도 불구하고 기업대출 비중 확대 등에 따른 대출 익스포저 평균 위험가중치 상승 효과(+0.5%포인트)로 전체 위험가중치 하락세가 둔화되었다.
- 5)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등에 대해 기존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익스포저 중 투자등급(7등급) 미만 비중이 전년말 대비 3.7%포인트 하락하였다.
- 6)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부문 규제 유연화 방안(4월 16일)」의 일환으로 바젤Ⅲ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을 2022년 1월에서 2020년 6월로 앞당겨 도입하기로 하였다. 동 개편안은 무등급 중소기업대출 위험가중치 하향 조정(표준방법), 기업대출 부도시 손실률 하향 조정(내부등급법)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각 은행별 준비 상황에 따라 2020년 6월말에는 2개 은행이 9월말에는 9개 은행이 바젤Ⅲ 개편안을 적용하였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4개 은행이 추가로 적용할 예정이다.

기업의 신용위험 부각시 국내은행 신용리스크 변동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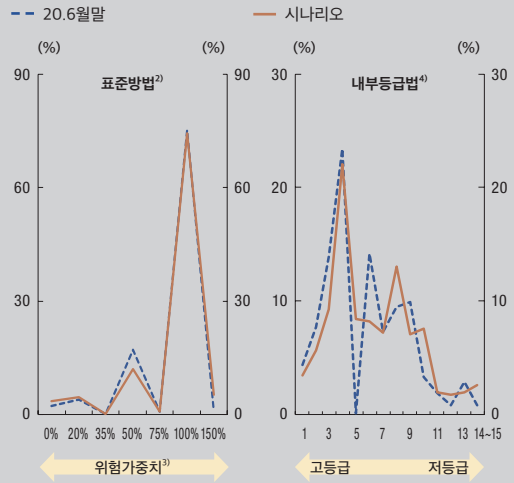
코로나19 영향 등에 따른 실물경기 부진이 장기화 될 경우 금년중 크게 확대된 기업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특히 각종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 될 경우 기업실적 부진 우려가 부각되며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거나, 나아가 기업대출 관련 건전성 지표가 악화될 수 있다.

이를 점검하기 위해 기업의 신용등급 분포가 금융위기 이후 기업부채 부실 우려가 가장 컸던 2015년 말 수준⁷⁾으로 악화되는 경우 은행 신용리스크가 얼마나 변동하는지 시산해 보았다.

참고로 차주별 위험가중치(RW)는 개별 은행의 리스크관리 역량 등에 따라 표준방법⁸⁾ 또는 내부등급법⁹⁾을 사용하여 산출한다. 표준방법은 신용평가사가 평가한 신용등급에 따라 차주별로 위험가중치를 차등하여 적용한다. 내부등급법의 경우 차주의 신용등급별 부도확률(PD)과 부도시 손실률(LGD) 등을 활용한 자체 모형을 통해 차주별 위험가중치를 산출하여 적용한다.

여기에서는 각 은행이 사용하는 위험가중치 산정방식(표준방법 5개 은행, 내부등급법 12개 은행)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신용리스크 변동을 추정하였다.

대기업 신용위험 부각시 시나리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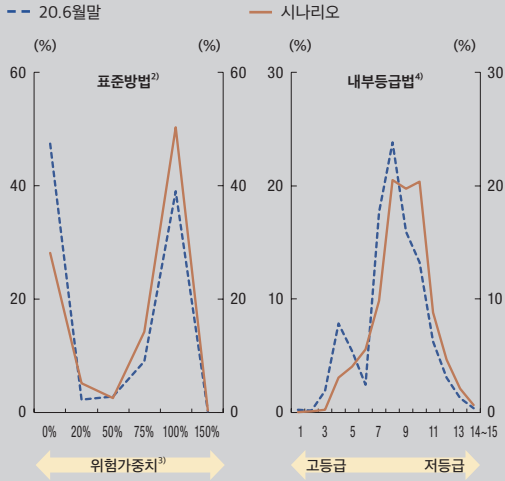
- 주: 1) 2015년 12월말 당시의 대기업 신용등급 분포 가정
 - 2) 표준방법 적용 은행(5개) 기준
 - 3) 신용등급에 따라 20%, 50%, 75%, 100%, 150%의 가중치를 적용
 - 4) 내부등급법 적용 은행(12개) 기준
-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7) 2015년은 조선·해운업을 중심으로 기업부채에 대한 부실 우려가 높았던 시기다. 2015년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정비율(신비율)은 각각 4.05%, 1.64%로 2020년 6월말(각각 1.34%, 0.83%)보다 2.71%포인트, 0.81%포인트 높은 수준이었다.

8) 표준방법 적용 시 신용등급에 따라 20~15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나 정부보증 대출의 경우 0%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코로나19에 따른 정부보증 등 금융지원이 지속되는 경우 0% 가중치를 적용받는 익스포저 비중이 현 수준(47.4%) 정도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해당 시나리오에서는 정부보증 등이 종료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2015년말 비중(28.0%)을 적용하였다.

9) 내부등급법을 적용받는 은행에 대해 신용등급별 부도확률(PD) 및 부도시 손실률(LGD)을 고정한 상태에서 신용등급별 익스포저 분포가 변동하였을 때 위험가중자산 변화를 시산하였다. 한편 기업 신용등급 하향 조정은 부도확률(PD)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기대 신용손실 증가를 통해 대손충당금 적립액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여 대손비용 상승 및 수익성 저하로 이어져 추가적인 자기자본비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본 분석에서 해당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다.

중소기업 신용위험 부각시 시나리오¹⁾



- 주: 1) 2015년 12월말 당시의 중소기업 신용등급 분포 가정
 2) 표준방법 적용 은행(5개) 기준
 3) 중소기업인·도매형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20%, 50%, 75%, 100%, 150%를, 무등급 중소기업은 100%, 소매형 개인사업자는 75%의 가중치를 적용
 4) 내부등급법 적용 은행(12개)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시산결과 대기업의 경우 신용등급 조정에 따라 신용리스크가 0.1%(2.0조원) 증가하여 국내은행(17개) 총자본비율을 0.02%포인트 하락시키는 데 그쳤다.¹⁰⁾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신용리스크가 3.4%(56.9조원) 증가하면서 국내은행(17개) 총자본비율을 총 0.47%포인트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

종합하면 기업의 신용위험이 부각되어 신용등급 분

포가 2015년말 수준으로 조정될 경우 대기업대출보다는 중소기업대출의 신용리스크가 더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¹²⁾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실적이 부진한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은행 자본적정성 평가에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과소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¹⁾

(조원, %p)

	대기업		중소기업	
	신용리스크 위험가중자산	BIS 총자본비율	신용리스크 위험가중자산	BIS 총자본비율
국내은행 (17개)	+2.0 (+0.1%)	-0.02	+56.9 (+3.4%)	-0.47
내부등급법 (12개)	-2.7 (-1.5%)	+0.03	+46.4 (+3.1%)	-0.44
표준방법 (5개)	+4.7 (+4.0%)	-0.43	+10.4 (+6.6%)	-0.92

- 주: 1) 2020년 6월말 대비 변동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시사점

국내은행은 그간 가계대출, 담보·보증대출 등 저위험대출 중심의 리스크관리로 규제비용을 큰 폭 상회하는 자본적정성 수준을 유지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금년중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용을 공급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은행 신용리스크가 불가피하게 증가한 측면이 있다. 다만 향후 원활한 금융중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10) 표준방법 적용 은행(5개)의 경우 총신용리스크는 4.7조원(4.0%) 확대되고 총자본비율(5개 은행 평균)은 0.43%포인트 하락하였다. 반면 내부등급법을 적용받는 은행(12개)의 총신용리스크는 2.7조원(1.5%) 감소하여 총자본비율(12개 은행 평균)이 0.03%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11) 표준방법 적용 은행(5개)의 경우 평균 위험가중치가 15.8%포인트 증가하여 총신용리스크는 10.4조원(6.6%) 확대되고 총자본비율(5개 은행 평균)은 0.92%포인트 하락하였다. 내부등급법을 적용받는 은행(12개)은 중소기업 가중평균 부도확률(PD)이 1.32%포인트 상승하고 평균 위험가중치(RW)는 6.21%포인트 증가한 결과 총신용리스크는 46.4조원(3.1%) 증가하고 총자본비율(12개 은행 평균)이 0.44%포인트 하락하였다.

12) 2020년 9월말 국내은행의 차주별 대출액은 대기업 189.5조원, 중소기업 819.0조원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약 4배 수준이다.

우선 기업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과거 2015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총자산 대비 신용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대출의 경우에는 금년 중 금융지원 조치 등으로 신용등급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차주의 신용위험이 실제보다 작게 인식되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자기자본비율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 자본적정성 규제를 완화한 결과, 실물부문 지원을 위한 은행의 대출여력은 확충되었지만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위기대응능력은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¹³⁾

국내은행은 앞으로 이러한 점들에 유의하여 코로나 19에 따른 실물부문 지원과정에서 소진한 자본 및 유동성을 확충하는 등 복원력 제고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13) 정부는 중소기업 등 특정 차주에 대한 위험가중치 축소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바젤Ⅲ 신용리스크 개편안을 조기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른 국내은행의 자본비율 상승 효과는 평균 1.91%포인트인 것으로 추정된다. IMF(20년 10월)는 코로나19 이후 은행의 신용공급여력 확충을 위한 주요국 정책당국의 대응이 자기자본비율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실물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경우 은행의 취약성과 손실흡수능력을 저하시키는 상충관계(trade-off)가 있음을 지적하였다.